

2022-06-20 (2022-23호)

6월 20일 로이터 뉴스레터

## ▶ 달러/원 주간 전망

### • 1,300원 앞 긴장감 지속... 파월발 변동성 관건

서울, 6월20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달러/원 환율은 이번 주에도 '빅 피겨' 1,300원을 가시권에 둔 채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275-1,300원이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고물가·저성장 늪에 빠져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원화를 둘러싼 약세 압력이 쉽사리 완화되지 못하고 있다. 달러/원 상승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되는 양상 속에서 중공업 매출 등 대기 매출도 있지만 이보다는 당국으로 추정되는 물량이 상단을 막아서고 있다.

아무리 상징성이 큰 '빅 피겨'라 할지라도 당국이 특정 레벨을 계속해서 방어하기는 힘든 만큼 어정쩡한 환경에서 환율이 1,300원대로 발을 들여놓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물가 안정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정부 스탠스를 고려하면 글로벌 금융시장 내 새로운 충격파 없이는 환율이 1,300원대를 쉽게 상향 돌파하기도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도 시장과 당국 간의 치열한 힘겨루기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 과정에서 달러/원은 수시로 거친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주목되는 금주 이벤트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통화정책 관련 반기 의회 증언이다. 연준 의장 발언에 따라 국내외 시장이 또다시 변동성에 시달릴 수 있다.

아울러 다른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줄줄이 예정돼 있어 이에 따른 시장 반응도 관건이다.

또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유럽 의회 경제·통화위원회 청문회 발언도 주목된다. 동결 전망이 우세하지만 중국 대출우대금리 결정 결과도 챙겨봐야 할 변수다.

고물가 제어를 위한 고강도 통화 긴축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를 고조시키는 가운데 주요국 경제지표에 대한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다. 유로존과 미국의 6월 S&P 글로벌 제조업·비제조업 PMI와 미국의 주택판매 지표 등이 예정돼 있다. 주 후반에는 미국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나온다.

국내에는 이달 20일자 수출입 잠정치와 5월 거주자 외화 예금 등이 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보고서를 발표한다.

한편 MSCI는 23일(현지시간) 2022년 연례 시장 분류 리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달러/원, 달러/위안 3개월간 추이

(편집 유춘식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주간 일정

###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6월20일(월)

- ⊙ 금융감독원: 원장, 은행장 간담회 (10:30)
- ⊙ 한국은행: 우리나라 고용의 질 평가 (BOK이슈노트 2022-22) (12:00)
- ⊙ 한국은행: 「글로벌 금융규제 뉴스레터」 재발간 안내 (12:00)
- ⊙ 금융감독원: 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12:00)
- ⊙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15:30)

6월21일(화)

- ⊙ 관세청: 6.1~20 수출입 현황
- ⊙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08:00)
- ⊙ 한국은행: 최근 애그플레이션 현황 및 시사점(BOK이슈노트 2022-23) (08:00)
- ⊙ 기획재정부: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 (08:00)
- ⊙ 한국은행: 총재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 (10:00)
- ⊙ 통계청: 2021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가구 고용현황 (12:00)

6월22일(수)

-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09:00)
- ⊙ 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11:00)
- ⊙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BIS 연차총회」 참석 (12:00)
- ⊙ 한국은행: 2022년 5월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 (12:00)
- ⊙ 통계청: 2022년 4월 인구동향 (12:00)
- ⊙ 통계청: 2022년 5월 국내인구이동 (12:00)

6월23일(목)

- ⊙ 한국은행: 2022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 (06:00)
-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리스크 대응 TF (09:30)
- ⊙ 금융감독원: 원장 연구기관장 간담회 (10: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경제분야 규제혁신 TF(주재) (10:00)
- ⊙ 기획재정부: 7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6월 발행 실적 (17:00)

6월24일(금)

- ⊙ 금융감독원: 5월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06:00)
-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책조정회의 (09:30)
- ⊙ 기획재정부: 1차관 인구위기대응 TF (10:30)
- ⊙ 한국은행: 2021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 (12: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단위	이전수치
6월20일	10:15	중국	대출우대금리 1년	6월		Percent	3.70%
6월20일	10:15	중국	대출우대금리 5년	6월		Percent	4.45%
6월21일	18:00	유로존	경상수지	4월		EUR	8.66B
6월21일	21:30	미국	전미활동지수	5월		Index	0.47
6월21일	23:00	미국	기존주택 판매	5월	5.41M	Number of	5.61M
6월22일	20:00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6월17일 주간		Index	307.4
6월22일	23:00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6월	-21.1	Net balance	-21.1
6월23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6월		Index (diffusion)	53.3
6월23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서비스업 PMI 잠정치	6월		Index (diffusion)	52.6
6월23일	17:00	유로존	S&P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	6월	54.1	Index (diffusion)	54.6
6월23일	17:00	유로존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잠정치	6월	55.5	Index (diffusion)	56.1
6월23일	21:30	미국	경상수지	1분기		USD	-217.9B
6월23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6월13일 주간		Person	229k
6월23일	22: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	6월		Index (diffusion)	57.0
6월23일	22:45	미국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잠정치	6월		Index (diffusion)	53.4
6월24일	00:00	미국	캔자스시티 연은 제조업지수	6월		Index	19
6월24일	08:30	일본	SPI	5월		Percent	2.5%
6월24일	21:00	미국	건축허가	5월		Number of	1.695M
6월24일	23: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최종치	6월		Index	50.2
6월24일	23:00	미국	신규주택 판매	5월	0.605M	Number of	0.591M

##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6월20일(월)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유럽 의회 경제·통화위원회 청문회 출석 (오후 10시)
- ⊙ 휴장국가: 미국

6월21일(화)

- ⊙ 호주중앙은행(RBA), 6월 통화정책회의록 공개 (오전 10시30분)
- ⊙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6월 서비스업 경기 전망 서베이 발표 (오후 9시30분)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전미 실물경제협회(NABE) 화상회의 참석 (자정)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리스크관리협회 연설 (22일 오전 4시30분)

6월22일(수)

- ⊙ BOJ, 4월27~28일 통화정책 회의록 공개 (오전 8시50분)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서부 버지니아 상공회의소 행사서 연설 (오후 10시)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연방시의회 행사서 연설 (23일 오전 1시)
-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상원 은행위원회 반기 통화정책 증언
- ⊙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코리더 비즈니스 저널 연중 이코노믹 리뷰 연설 (23일 오전 1시50분)
- ⊙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필라델피아 연은 주최 심포지엄 참석 (23일 오전 2시30분)

6월23일(목)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유럽이사회 참석
-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증언 (오후 11시)

6월24일(금)

- ⊙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채프먼대학교 컨퍼런스서 연설 (25일 오전 5시)

## ▶ 금주 세계 5대 이슈

### ⊙ 유일한 비둘기 BOJ

일본은행(BOJ)은 전 세계적인 통화정책 흐름을 거슬러 초완화 정책과 10년물 국채 매입 약속을 고수하고 있다.

그 결과 엔 가치는 연일 절하되고, 채권시장은 헤지펀드와 정책결정권자들 간의 힘겨루기 속에 몸살을 앓고 있다.

7월 참의원 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생활비가 증가하고 있어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려는 BOJ의 노력은 정치적인 압박에 직면할 수도 있다.

24일 발표될 인플레이션 지표가 2개월 연속 목표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할 경우 압박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 ⊙ ECB의 채권시장 안정화 조치

ECB가 유로존 내 부채가 많은 남부 국가들에 대한 추가 지원을 약속하며 정책 긴축 계획이 초래한 불안 완화에 나섰다.

아직 새 장치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어떤 형태가 될지 궁금한 투자자들은 힌트를 찾아 헤맬 것이다.

채권시장은 ECB의 계획에 일단 안도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인내력이 부족해 곧 ECB의 채권시장 안정 의지를 시험할 수 있다.

시장에 채권금리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확신을 주지 못해 6일 만에 다시 등판해야 했던 ECB 관리들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 ⊙ 주요국 PMI

23일 발표될 6월 구매관리자지수(PMI) 잠정치는 기업들이 이달 금리 급등과 소비자 심리 위축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여주리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지표가 될 전망이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의 PMI는 50선을 상회해 경기가 확장 중임을 보여준 반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아시아의 수치는 경기 수축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제 유럽과 미국의 PMI도 채권금리 상승이 영향을 미치면서 방향을 틀어, 6월 PMI가 완만한 추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로이터 조사에서 추정됐다.

PMI 관측통들은 중국의 봉쇄 해제와 투자 박차에 5월의 상승세를 6월에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아시아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국 PMI가 다시 경기 확장 영역으로 회복하면 세계 경제에는 보너스가 될 것이다.

### ⊙ 파월 의장 청문회

근 30년 만의 최대폭 금리 인상을 단행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2일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다.

연준은 지난 15일 인플레이션 급등에 금리를 75bp 인상하고, 향후 인상 가속화를 시사했다. 하지만 경기 둔화와 실업률 상승을 예상해 앞으로 균형잡기가 까다로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이번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를 거듭 피력하리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S&P500지수가 1월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에서 20% 하락하고 다른 자산 가격들도 하락하고 있어, 그는 경제와 시장에 너무 많은 혼란을 초래하지 않고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제어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 터키 금리 결정과 리라

터키 중앙은행이 23일 금리 결정 회의를 갖는데, 동결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는 곧 리라가 받는 하락 압력 증대를 의미한다.

외환보유고 축소와 70%를 넘는 인플레이션율에도 금리는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

때문에 14%에 묶여 있다.

대신 가치가 90%가량 절하된 리라 약세 여파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도입했지만 인플레이션 급등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다른 신흥시장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상에 나설 전망이다. 체코는 22일 금리를 100bp 인상할 가능성이 있고, 인도네시아는 23일 긴축 사이클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멕시코는 75bp를 인상하고 이집트는 지난달 200bp에 이어 인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시장진단) - 연준·ECB '급한 불' 진화에 상승 제동 걸린 달러/원... '확대해석 경계' 지적도

서울, 6월16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빅 피겨인 1,300원을 넘보던 달러/원 환율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회의 불확실성을 떨치며 1,270원대 후반으로 후퇴했지만, 다시 반등 탄력을 키우며 전진하고 있다.

이날 환율은 개장과 함께 전날 종가 대비 12원 밀려 1,278원으로 속락했다. 1,300원을 향해 내달리던 환율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이 경직됐던 시장심리를 달래는 데 일단 성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20년 만의 최고치로 급등했던 달러지수는 하락했고, 10년 최고치로 오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속락했다. 또한 유로존 신용 경색 조짐도 다소 완화됐다.

### ▲ 급한 불 끈 연준·ECB

지난 주말 미국 5월 소비자물가 결과를 충격으로 받아들인 시장은 6월 연준 회의를 앞두고 급하게 자이언트 스텝, 즉 75bp 금리 인상을 반영했다. 이에 달러/원 환율은 치솟는 채권금리와 달러 강세 확대 흐름을 반영해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로 급등했다.

또 이 과정에서 ECB의 채권매입 중단 계획과 연속적인 금리 인상 시사 등 적극적인 통화긴축 동참 결정이 알려지며 유로존 신용 리스크 우려 확대로 시장심리는 더욱 압박받았다.

하지만 연준이 6월 정책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하고, 확고한 정책으로 물가 목표치 복귀에 전념할 것을 밝힌 데 힘입어 일단 시장은 안도했다.

연준은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2.8%에서 1.7%로 크게 낮췄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올해 물가 전망을 4.3%에서 5.2%로 큰 폭 상향 조정했지만 파월 의장은 6월 75bp 금리 인상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7월에는 50bp 혹은 75bp 인상이 유동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재차 시장을 달랬다.

한편 ECB는 15일(현지시간) 임시회의를 열고 남유럽 국가에 대한 새로운 지원책을 약속하는 등 10년 전 부채 위기까지 상기시킨 채권시장 불안 완화에 나섰다.

### ▲ 달러/원 급락 이후 재전진

6월 연준 회의 직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불안의 불씨가 재점화될 가능성

은 여전히 높다는 게 시장참가자들의 평가다.

미국 물가지표 충격을 급하게 반영한 데 따른 시장의 과격한 선반영이 일부 되돌려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주로 나온다. 연준 회의를 앞두고 구축됐던 달러 롱 포지션에 대한 단기 차익실현이 유발됐고, 달러/원도 이같은 흐름을 따른 정도라는 진단이다.

A은행 달러는 "시장은 내년 1분기까지 연준 금리 4%가 현실화된다는 건데 어제 반응은 일단 한번 접는 걸로 보이긴 했지만 결국 갈길을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씨티은행은 이번 연준 회의가 대체적으로 매파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6월 CPI도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FOMC에서 한번 더 75bp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ECB 조치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2010년과 2012년 유로존 부채 위기를 경험한 ECB가 선제적 대응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금융시장에 긍정적이었지만 근본적인 유럽 국채시장 안정화 조치가 발표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불안을 해소시키기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국채시장 불안 역시 물가압력 확대가 근본적인 이유라는 점에서 물가 리스크 진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달러/원 환율은 1,276원선에 저점을 기록한 이후 1,280원대 중반으로 반등했다. 역외 기관들의 일부 차익실현이 있었지만, 장중 저점 매수세가 차곡차곡 들어오는 모습이다. 잠시 시간을 벌긴 했지만, 환율 상승 추세는 유효하고 그 과정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리스크는 더욱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은행 외환달러는 "물가를 잡기 위해 중앙은행들이 급하게 대응해야하는 상황이고 관련 시장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보다는 상당기간 이어져야하는 분위기"라면서 "연준 회의 직후 시장이 잠시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분석) - 연준 회의 후 시험대에 오른 경제 '연착륙' 믿음

뉴욕, 6월16일 (로이터)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향후 경기침체 및 변동성 거래 확대 우려가 커진 가운데 미국 경제 연착륙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이 시험대에 올랐다.

연준이 15일(현지시간) 끝난 정책회의에서 금리를 75bp 인상하고 향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더 큰 움직임을 약속한 이후 애널리스트들과 투자자들은 경기침체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보고 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전력을 다하리라는 기대감에 힘입어 이날 주식시장은 랠리를 보였지만, 인플레이션이 약해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는 급격한 주식 매도세가 전환점을 맞이하리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미국 S&P500지수는 올해 현재까지 22.2% 급락해 약세장에 진입한 상태다.

T.로우프라이스의 스티브 바톨리니 채권 펀드 매니저는 "변동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이에 나

를 포함한 시장 참가자들은 전반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하는 데 흥미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1.7%로 낮추는 등 경제 전망도 하향 조정했다. 그간 애널리스트들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경기침체에 빠뜨리는 '경착륙'을 할지, 아니면 성장을 좀 둔화시키거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연착륙'을 할지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다.

연준 관리들은 향후 더 빠른 금리 인상 경로를 신호했다. 그러나 7월 정책회의에서 또 한 번 75bp 금리 인상이 가능함에도, 제롬 파월 의장은 이 같은 움직임이 "흔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착륙을 피할 수 있다는 파월 의장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1995년 이후 가장 급격할 것으로 보이는 현 긴축 사이클에서 경제가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고 회복할 수 있다는 데 확신이 덜하다.

웰스파고의 애널리스트들은 15일 경기침체 가능성은 현재 50% 이상이라고 밝혔고, 도이치은행과 모간스탠리 등 다른 투자은행도 경기침체 리스크 증가를 경고했다.

실제로 이미 투자자들은 경기침체 리스크로 인해 연준이 곧 경로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ING 애널리스트들은 노트에서 "더 강하고 빠른 움직임은 경제적 비용을 치르며", 경기침체 리스크 증가는 "금리 인하가 2023년 여름 의제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경기침체가 오면 이미 타격을 입은 주식시장의 고통은 가중될 수도 있다. 비스포크인베스트먼트그룹 자료에 따르면 경기침체를 동반한 약세장은 약 35% 급락(중간값)하는 등 더 오랜 기간, 더 가파른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연준 정책 결정권자들은 수 주간 6월과 7월 50bp 금리 인상과 함께 9월에는 긴축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을 신호했다. 그러나 지난 주말 발표된 5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근 40년 반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전망이 바뀌었다.

일부 투자자들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너무 느리게 대응하거나 뒤처져 있다고 비난했다.

앤젤레스인베스트먼트어드바이저스의 마이클 로젠 최고투자책임자는 "연준은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솔직히 통화정책을 잘못 다뤄 인플레이션을 이만큼 상승하게 함으로써 자초한 것"이라며 "이른바 '연착륙' 가능성 점점 더 낮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 ◆ "극도로 매파적"

S&P500지수는 15일 1.45% 상승했는데, 일부 투자자들은 이를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단호한 억제 의지에 신뢰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낙관론이 오래 지속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글로벌 거시경제 리서치 기업인 매크로인텔리전스2파트너스의 공동창업자인 줄리안 브리스덴은 연준의 스탠스가 리스크 자산에 긍정적인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은) 극도로 매파적이었고, 경제전망요약(SEP)에서 실업률 상승을 예상하며 경기침체 가능성과 관련해 분명히 고개를 끄덕였다"고 말했다.

경제가 약하고 주식 변동성이 지속되면 국채 랠리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올해 국채 매도세를 감안할 때 매수 기회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맥쿼리에셋매니지먼트의 다니엘라 마르다로비치 다중자산 채권 공동헤드는 "이번 회의 후 수익률 커브의 10년, 30년 부분의 안정성에 대한 우리의 편안함이 극적으로 높아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

브리스덴은 "우리는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 연구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고, 이에 연준의 공격적 스탠스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문윤아 기자)

((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6월17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1,287.3	-1.4%	-7.7%	-8.6%	유로	1.0500	-0.2%	-7.7%	-6.9%
100엔 대비	956.9	-0.5%	8.0%	+1.8%	엔	134.98	-0.4%	-14.7%	-10.3%
유로 대비	1,356.1	-0.8%	-0.3%	-1.9%	위안	6.7173	-0.1%	-5.4%	+2.7%
위안 대비	192.29	-0.8%	-2.7%	-11.1%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다우존스	29,888.78	-4.8%	-17.7%	+18.7%
코스피	2,440.93	-6.0%	-18.0%	+3.6%	나스닥	10,798.35	-4.8%	-31.0%	+21.4%
코스닥	798.69	-8.2%	-22.8%	+6.8%	S&P500	3,674.84	-5.8%	-22.9%	+26.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MSCI APxJP	521.43	-5.2%	-17.2%	-4.9%
국고채 3Y	3.745%	47.0bp	194.7bp	+82.2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국고채 5Y	3.855%	40.3bp	184.4bp	+67.6bp	미국채 2Y	3.170%	10.0bp	244.0bp	+61.0bp
국고채 10Y	3.795%	30.0bp	154.5bp	+53.7bp	미국채 10Y	3.230%	7.0bp	172.0bp	+59.5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1(%)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1(bp)
유가(WTI)	110.48	-8.3%	46.4%	+55.8%	한국 5Y	51.8bp	7.1bp	29.7bp	-0.7bp
금(현물)	1,840.35	-1.7%	0.6%	-3.6%	일본 5Y	20.1bp	-0.1bp	2.4bp	+2.1bp
TR상품지수	3,676.30	-2.2%	10.1%	+24.6%	중국 5Y	88.1bp	17.8bp	46.9bp	+12.1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